

세플러⁺원

Vol. 70 / Autumn 2022

Schaeffler is Sustainable

지속가능성, 연속성, 미래성장동력,
ESG는 시작된다.

세플러코리아만의 미래 준비.

SCHAEFFLER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하루도 헤쳐나갈 수 없다.
무엇을 하느냐가 차이를 만들고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든지 결정해야 한다.



제인 구달 Jane Goodall, 인류학자

죽어버린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데이비드 브라운 David Brower, 환경운동가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한다면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본 쉬나드 Yvon Chouinard, 기업인

자연은 불완전하거나
아무것도 헛되이 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철학자

올바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넬리 블라이 Nellie Bly, 저널리스트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중 하나는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톨스토이 Leo Tolstoy, 소설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명사

환경 파괴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

유의어

미래 성장, 사회적 책임, ESG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은
내일 아침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결정한다



에브너 에센바흐 Ebner-Eschenbach, 소설가

Contents



4in1 electric axle from Schaeffler



Schaeffler is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로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플러+원> 인터뷰 코너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세플러+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세플러코리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플러+원>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일 2022년 10월 15일(통권 제 70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32F
 기획·디자인 PEOPLE PAGE(대표전화 02.6674.0111)



Theme Ground



08 세플러 재발견
미래 모빌리티의 진보

12 리더에게 묻다
지속가능에 대하여
크나야사르 창원공장 공장장

16 Gruu에게 묻다
에코 라이프, 당신의 선택은?

20 환상의 팀워크
모두에게 이로운 기술을 제공하다
Corporate Competence Center
Central Technology

26 세플러의 액션
미래를 위한 세플러의 약속

28 세플러 스토리
지속가능을 만들어낸 세플러의 기술

32 공존 뽀뽀!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환경다큐멘터리



Play Ground



36 미션클리어
과일을 지켜라

40 당신의 실천을 보여주세요
세상 하나뿐인
우리 가족의 작은 정원
설비보전 안산 김종탁 사원 가족의
테라리엄 만들기

44 세플러인 분석보고서
세대별 가치소비 실천력은?



Schaeffler Ground



48 세플러 #고고고 영상 챌린지
가까이에서 찾은 행복

52 Schaeffler Headline

55 Thanks & Quiz



THEME GROUND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가 된 지금, 우리 삶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노력을 넘어 이제 우리는 함께 대응하고 하나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또 다른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진보

세플러가 전기차 시대에
맞춰 전기액슬 하나에
전기모터와 전력 전자장치,
변속기 그리고 열 관리
시스템까지 담은 '4in1
전기액슬'을 선보였습니다.
4in1 전기액슬 개발은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개발과 생산을 향한 세플러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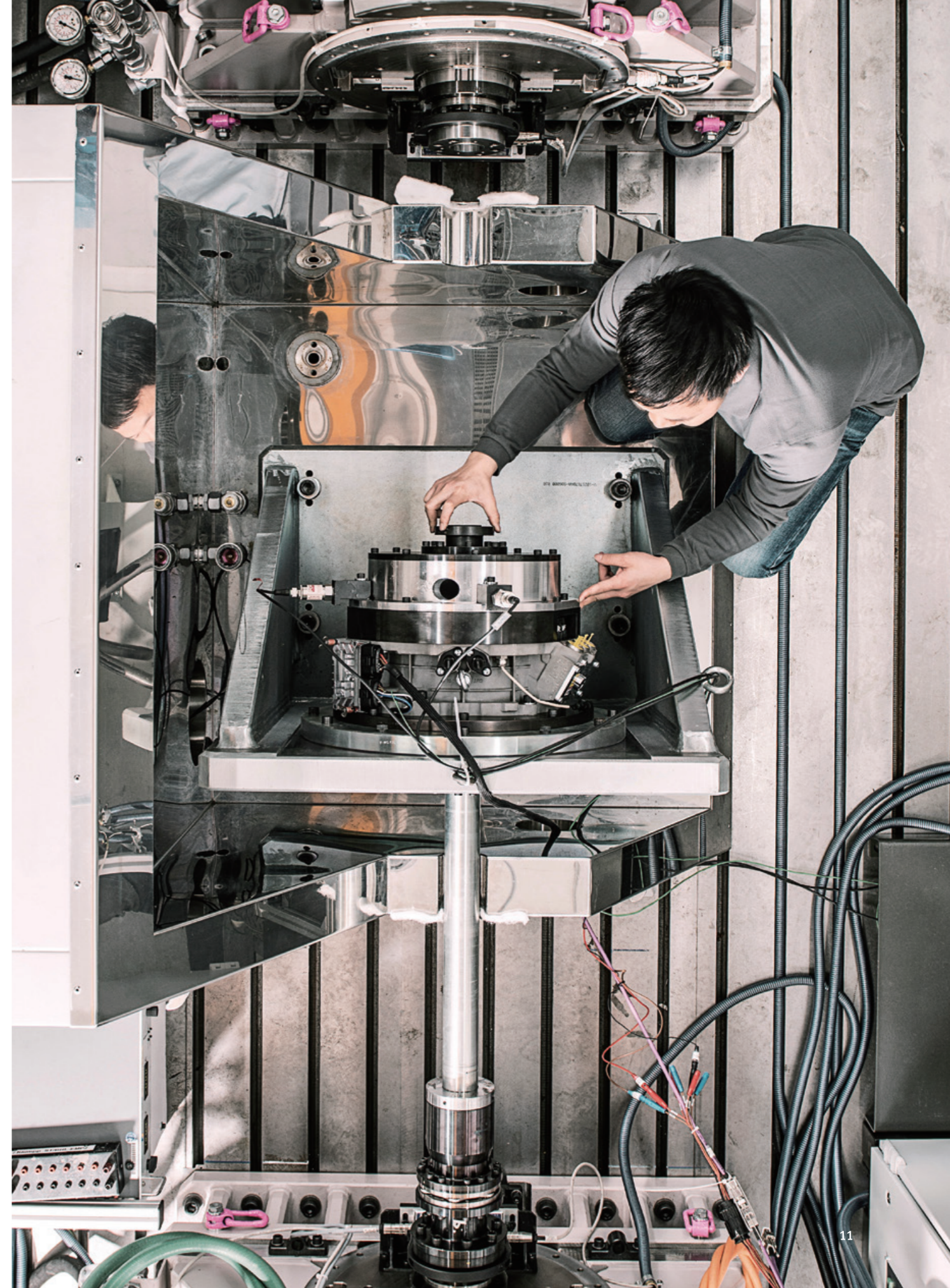
**SUSTAINABLE
MOBILITY**

세플러코리아는
세상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연구개발은
우리의 미래로 이어집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 자동차 업계의 흐름에

맞춰 세플러코리아는 친환경차를 위한 다양한 부품 및 솔루션에 부응하는 E-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포트폴리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4in1 전기액셀'입니다. 4in1 전기액셀은 기존 전기모터, 변속기, 전기-전자장치를 하나로 통합, 열 관리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기존 내연 기관차에서의 열은 냉난방을 위한 편의기능에서만 사용됐다면, 4in1 액셀은 효율적인 열 관리를 실현해 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공정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플러는 4in1 전기액셀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천연 냉매'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모빌리티의 미래를 앞당겼습니다. 세플러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에 맞춰 E-모빌리티와 관련된 부품인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구현해나갈 것입니다.

We pioneer motion





크나 야사르(왼쪽)가 6년째 근무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세플러는 로드맵 2025를 통해 지속가능을 전략적 수단으로 기후 중립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세플러가 추구하고 만들어갈 지속가능은 무엇인지, 구성원이 함께 실행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크나 야사르 창원공장장에게 물었다.

지속가능에 대하여

창원공장 공장장

Kina Yasar

PROFILE 스탬핑과 성형 프로세스에 필요한 툴 제작 전문가라 불리는 크나 야사르(Kina Yasar) 창원공장 공장장은 1992년 당시 FAG 독일 트레이닝 센터에서 인턴십을 시작으로 세플러인이 되었다. 약 30년간 여러 나라의 세플러를 누비며 얻은 현장과 기술을 접목한 그만의 노하우로 베어링 생산 저변화에 힘쓰고 있다.

창원시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아주 좋아요. 산과 바다도 있고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들이 가능하다는 점이 맘에 들어요. 거기에 맛있는 삼계탕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무엇보다 열정적이고 근면한 세플러코리아 창원공장의 임직원들이 있어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번 호 테마가 지속가능입니다.

세플러의 지속가능은 어떠한 차별점이 있나요?

세플러그룹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의 선구자이자 표본이 되어 왔어요. 아시다시피 세플러그룹은 명확한 지속가능 전략과 목표 설정으로 UN의 50대 글로벌 리더 기업에 선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직원 역량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 확대도 필요해요. 현재 세플러코리아에서 이뤄지는 임직원 직무교육, 추가 자격 취득을 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임직원들의 역량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죠.

창원공장에서의 지속가능은

어떻게 구현돼야 할까요?

창원공장의 우선순위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 작업 손실 시간(Lost Time Injury Rate, LTIR)을 낮추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더불어 임직원은 기후보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정된 바 있죠. 이에 세플러그룹은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전략을 토대로 수립한 경영진 핵심관리 지표를 실행하고 있어요. 핵심관리지표는 경영진의 보수와 연동되어 보수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이에 그룹 전체가 환경과 임직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 지속가능경영을 내재화 하고 있다는 점이 세플러만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세플러코리아의 지속가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임직원입니다. 생산 현장의 설비나 회사의 유형

자산이 있어야 하고요. 한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후보호에 의식을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최근 진행된 '클라이밋 액션데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의 폭과 기준을 높이는 행동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부분이 궁금합니다.

세플러의 지속가능 목표와 매니저, 팀 리더 레벨에서 달성 가능한 세분화된 목표를 제시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달성할 수 있게 지속가능한 목표로 확장해나가야 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원공장은 2023년 지속가능과 관련된 직무와 엔지니어 등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여겨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원공장만의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주력 사업은 무엇인가요?

창원공장은 과거 세플러그룹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장으로 손꼽혀 왔는데요. 최근에는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도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죠. 이때 우리는 전기모터용 고속 베어링과 반도체용 진공펌프 베어링 생산은 물론 다양한 산업기계용 특수 베어링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루 갖춰나가야 해요. 모든 임직원이 다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창원공장은 다시 한번 베어링 분야에 있어 최고의 공장, 벤치마킹의 표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공장장님의 올해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먼저 우리 창원공장이 세플러그룹 베어링 사업부의 대표 공장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한국어 공부에 더 힘써, 2023년에는 창원공장 임직원분들과 한국어로 허심탄회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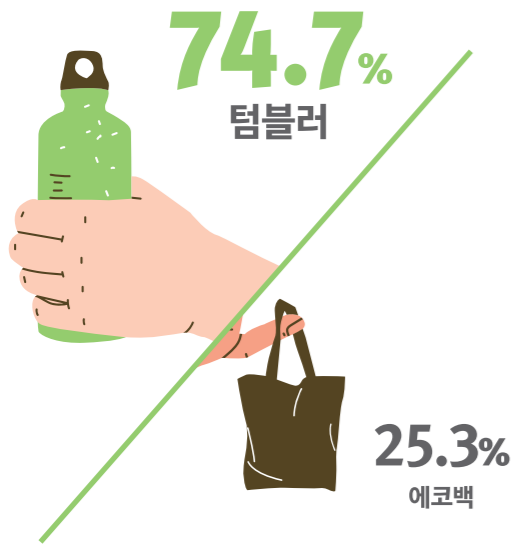
세플러코리아 임직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빨리 빨리'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배웠어요. 우리 임직원은 두 단어가 뜻하는 강점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필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씩, 정확하면서 빠르게 지속가능하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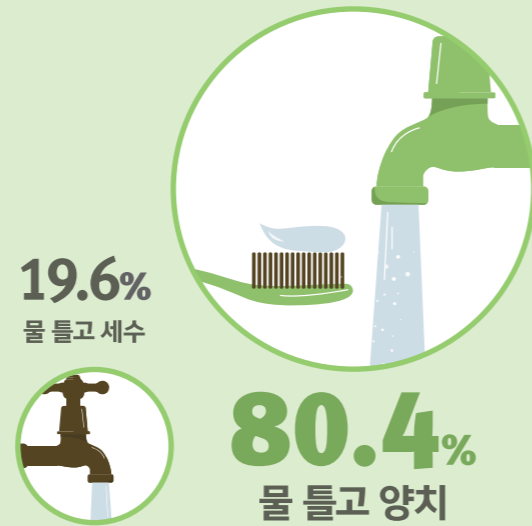
“한국인의 ‘하나씩 하나씩’, ‘빨리 빨리’ 문화를 적용해 우리는 지속가능한 창원공장의 모습을 갖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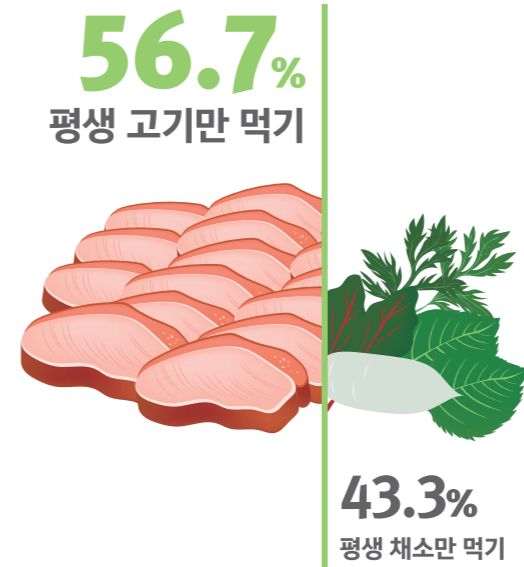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친환경 물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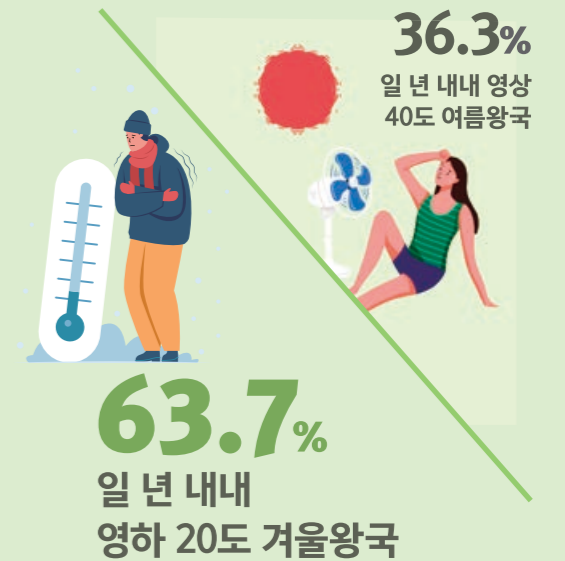
물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식단만 가능하다면?



딱 한 곳만 골라야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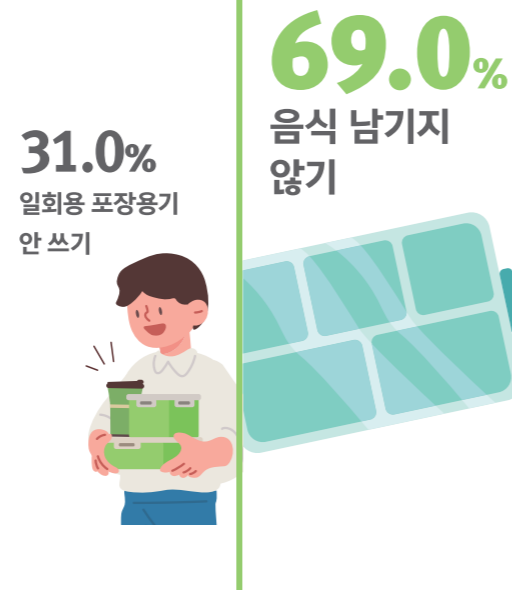
에코 라이프, 당신의 선택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지구와 인류의 조화가 깨져버렸다. 세플러코리아인들의 자연과의 조화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극강의 친환경 밸런스 게임으로 세플러인코리아인들이 실천하는 '필(必)환경 라이프'를 포착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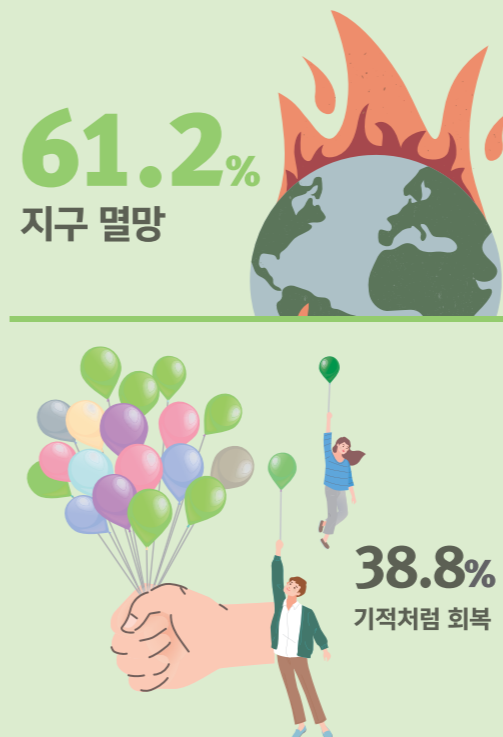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2.9.7~9.22
응답자: 세플러코리아인 245명

*밸런스 게임: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최대한 빠르게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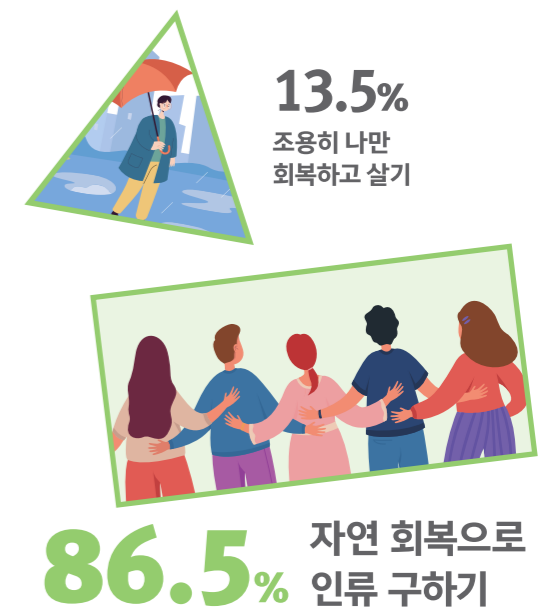
챌린지 성공 확률이 더 높은 쪽은?



이대로 가다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



터치 한 번만으로 회복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세플러코리아인의 에코 라이프

세플러코리아인에게 '에코 라이프를 위한 나만의 다짐'을 물어보았다.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텀블러 애용하기 등 다양한 다짐들이 등장해 함께 실천하면
좋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세플러코리아인들의 생각들을 전한다.



일회용품 자제는 필수

- ☞ 배달 음식 주문할 땐 '일회용품 필요 없음' 선택하겠습니다.
- ☞ 사무실에서 종이컵 대신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 중입니다. 앞으로 카페나 음식점을 갈 때도 꼭 챙겨볼게요.
- ☞ 캔버스 에코백을 최소 131번 사용해야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대요. 친환경 라이프의 전제 조건은 무조건 '꾸준함'이겠죠?
- ☞ 장 보러 갈 때마다 장바구니를 깜빡했는데 앞으로는 꼭 갖고 다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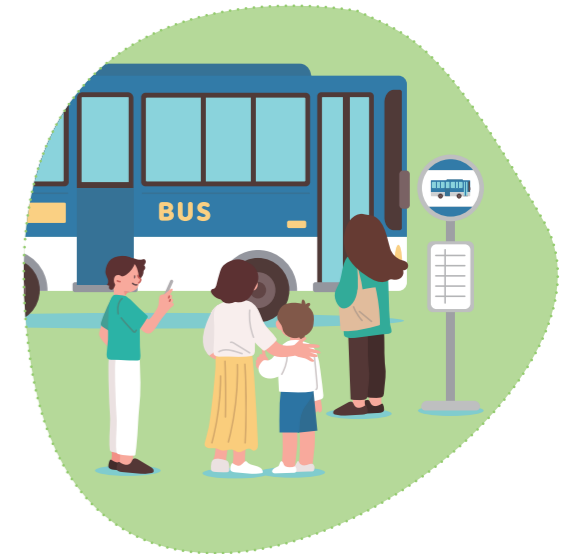
언제나 에너지 절약

- ☞ 샤워는 10분 안에, 양치할 땐 수도를 잘 잠글게요.
- ☞ 계단 오르기만큼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속 운동도 없더라고요. 낮은 층은 계단으로 다녀보세요! 꾸준히 하다 보면 한 층, 한 층 늘려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 ☞ 건강과 난방비 절약 모두 챙길 수 있는 실내 적정 온도 설정!
- ☞ 대기전력 저감 성능이 우수한 에너지 절약 기업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 배출량 절감

- ☞ 불필요한 공회전은 No! 탄소 배출량은 물론이고, 미세먼지 농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 ☞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 ☞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겠습니다.
- ☞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탄소발자국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버스와 지하철을 애용합시다.



마음가짐부터 '에코스럽게'

- ☞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 ☞ '나 하나쯤이야.' 에코 라이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생각!
- ☞ 미래의 행복을 위해 조금 불편한 오늘을 견뎌보겠습니다.
- ☞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다.'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의 힘을 믿겠습니다.



환경오염 줄이는 한걸음

- ☞ 음식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 비용이 엄청납니다. 먹을 만큼만 고르고, 음식은 남기지 말기로 약속!
- ☞ 합성세제는 수질오염의 주범! 세탁할 때, 설거지할 때 세제 사용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 ☞ 담배꽂초 한 개비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금연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건강도 되찾아봐요!
- ☞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습관, 올바른 분리수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세플러코리아에 연구 개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Corporate Competence Center Central Technology 부서가 신설됐다. 기술 협력은 물론 주력 개발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연구까지 도맡은 이들이 만드는 세플러의 오늘과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모두에게 이로운 기술을 제공하다

Corporate Competence Center
Central Technology Asia Pacific

S U S T A I N A B L E

세플러의 기술을 더하고 나누는 이들

창원연구소에 자리 잡은 Corporate Competence Center Central Technology(CCC CT)의 중심에는 ‘기술’과 ‘연구’가 있다. CCC CT의 주요 업무는 구성원 각각의 전문 분야 연구개발을 비롯해 사업부 R&D 부서들의 활동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전하는 것 그리고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기술 협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CCC CT가 제공하는 기술 협력은 사업과 연구 분야 확장 등과 연결되어 정확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이뤄진다. 세플러가 그동안 쌓아온 전문 역량과 기계·재료·전기공학·전기화학 분야 등의 핵심 기술을 갖게 되면서 최근 들어

왼쪽부터 김민환 팀장, 김정길 팀장, 박성원 수석연구원





왼쪽부터
 김수연 수석연구원 (재료기술)
 박성원 수석연구원 (항공기술)
 이재성 팀장 (재료기술)
 이시형 사원 (재료기술)
 김민환 팀장 (CCC CT)
 김정길 팀장 (항공기술)

고객사로부터 깊이 있는 기술 협력을 요청받고 있기 때문. 이때 CCC CT의 전문 연구원이 직접 대응하며 주력 제품에 대한 연구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 협력과 개발을 통해 세플러의 경쟁을 높이고 있다.

CCC CT 총괄을 맡고 있는 김민환 팀장은 “세플러그룹 내 아시아 태평양 소속 재료·항공·표면기술 전문 연구원 14명이 모인 조직이에요. CCC CT는 직접 기획한 연구 수행은 물론, 이차전지, 수소기술, 센서, 모니터 등으로 연구 분야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이는 세플러가 고부가가치 분야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너지를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며 CCC CT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전문성이 만들어낸 성장 발판

업무 특성상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CCC CT 구성원은 세플러 내에서도 역량과 기술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이들이 집결해 있다. CCC CT가 조직되기 이전부터 각 구성원이 소속돼 있던 세플러코리아의 재료·항공·표면기술팀은 독일 본사를 제외하고 세플러 내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부서’로 소속된 대부분의 구성원이 부서 이동 없이 오랜 시간 근무하며 핵심 기술을 연구해 왔다. 김정길 항공기술 팀장은 “구성원들의 업무 역량은 말할 것도 없고, 전문성은 더 강화된 상태라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연구소이자 기술사업부 기술대응팀까지 3in1의 CCC CT

CCC CT 구성원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는 팀원 간의 협업은 물론 연구 개발에 제반되는 모든 부분에서 여러 부서들과도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데 CCC CT는 이러한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세플러의 자동차 산업 기계 기술사업부를 넘어 연구기관이자 기술대응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에 업무적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팀원들의 소통과 결속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전과 변화, 세플러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

CCC CT는 얼마 전 트라이볼리지 관련 연구 주제로 최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했다. 베어링 신소재와 열에너지 관련 특화 연구에 대한 논문으로, 세플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가 수상을 했다는 점에서 세플러의 지속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김민환 팀장은 “앞으로 세플러의 베어링 관련, 재료, 윤활 그리고 표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미래 혁신 기술로의 활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CCC CT 구성원은 기술 동향 파악과 더불어 보유한 역량을 결합과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연구 개발로 ‘모두에게 이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기술과 공정이 모여야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듯 하나된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CCC CT. CCC CT는 앞으로 세플러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보인다.

Talk.

CCC CT가 생소하고 긴 이름의 부서명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강력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분야로 변화되는 환경에 도전하며, 잘 적응하는 부서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각자가 잘하던 것을 넘어 세플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것입니다. 이에 오랫동안 함께 지속되는 부서로 세플러코리아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겠습니다.



김민환 팀장
 (Corporate Competence Center
 Central Technology AP)

멀리 오래 가려면?

지속가능의 핵심은 체력!



지속가능은 '건강'이 바탕이 되어 한다. 건강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을 실현하고 있는 CCC
CT 구성원의 체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일명 '미니 체력장'으로 균형감각, 지구력, 순발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 가지 종목을 선정했다.
과연 CCC CT의 체력은 어떠했을까?



☑ 흔들흔들 한 발 오래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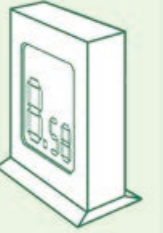
한 발 들고 오래 서기는 모두가 자신감을 보였다. 체력만큼은 타고난 이들이
모였다는 김정길 화공기술팀장의 이야기처럼 한 발을 들고도 안정적인
자세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오랜 시간 버티던 세 사람 중 김민한 팀장과
김수언 수석연구원이 결혼식을 앞둔 새신랑 이시형 사원이 행여 다칠세라
눈치껏 중심을 잃어주며 한 발 오래 서기 도전은 아름답게 마무리됐다.
결론적으로 균형감각 테스트는 만점!

READY



☑ 으랏차차 스쿼트

스쿼트를 통한 체력 확인은 김정길 팀장과
이재성 팀장 그리고 박성원 수석연구원이
나섰다. 평소 운동을 즐겨 한다는 이들은 쉽게
스쿼트를 해나갔다. 안정적인 자세로 해나가는
이들에게 짓궂게 자세 훈수를 두던 팀원들의
자세를 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



☑ 손바닥 밀기

마지막 손바닥 밀기 종목은 체력 확인에
약간의 재미를 더했다. 손바닥 밀기에는
이재성 팀장과 이시형 사원의 대결로
진행됐는데 대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만
더욱 확인하며 마무리됐다. 이로써 CCC CT의
미니 체력장 3개 종목 모두 무사통과!

미래를 위한 세플러의 약속

세플러는 8가지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했다. 8가지 지속가능성 목표는 기후 목표 이외에도 세플러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두고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 관리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목표 달성과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UN의 17가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인 인류,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세플러인 모두가 함께 이행해야 할 약속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

냉난방 온도조절, LED 기반의 조명 사용 등 에너지 효율 조치를 실시해 연간 누적 100GWh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달성. 목표 기한 2024년

UN SDGs 12, 13



47%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세플러그룹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 재생에너지로 사용, 목표 기한 2024년

UN SDGs 7, 13



68%

공급망 내 기후 중립 달성

세플러그룹의 전체 공급망 내 발생하는 CO₂를 2019년 대비 절감하기 위한 목표. 2040년까지 지역사회 등 모든 밸류체인(가치사슬)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목표 달성. 목표 기한 2040년

UN SDGs 12, 13



NEW target

생산 시설 내 기후 중립

2030년까지 세플러그룹 내 모든 생산 시설에서 발행하는 CO₂를 2019년 대비 절감하기 위한 목표. 생산 과정에서 CO₂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후 프로그램 구현과 재생에너지 비중과 에너지 효율 대책의 확대. 목표 기한 2030년

UN SDGs 12, 13



31%

100%

CDP 등급 향상

2021년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 등급 A- 달성. 기후변화 대응과 수자원 보호 등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기회를 측정하고 온실 가스 배출량과 감축 실적, 대응 전략 등의 경영정보를 평가해 대외적으로 공개해 측정된 평가기준. 2021년 완료



UN SDGs 13

100%

산업 재해율 감소

사업장 내 산업 재해율 연간 평균 사고율(LTIR) 10% 감소. 2020년 잠정 목표치인 4.7%를 초과 달성. 2020년 완료(목표 기한 2024년)



UN SDGs 3

15%

담수 사용률 절감

그룹 내 담수 사용률을 2019년 대비 20% 절감 달성. 목표 기한 2030년



UN SDGs 6

76%

지속가능한 협력사

2022년까지 생산에 사용하는 원자재의 90%를 지속가능경영에 참여하는 공급업체로부터 구매.



UN SDGs 8, 17

세플러는 이제 베어링에서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 중심에 자동차 새시 메카트로닉 제품이 있다. Q7 데모 차량 시승식을 통해 그 기술을 입증하며, 지속가능을 만들어낸 세플러의 기술, 지금 알아본다.

지속가능을 만들어낸 세플러의 기술



협업이 이뤄낸 결과

새시 애플리케이션은 세플러그룹이 선정한 5대 집중 영역 중 하나다. 새시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자동화, 자율주행 등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로 세플러코리아는 아우디 Q7 데모 차량 시승식을 통해 세플러의 새시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 BU 메카트로닉 솔루션팀은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차량 등의 정보 습득을 위해 Vehicle Handbook(차량 정보 및 시스템 작동 및 주의 사항 가이드북) 공부를 시작으로 HQ engineering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온라인 트레이닝을 통해 작동부터 안전 주의 사항을 교육받았다. 이후 Q7 데모카가 한국에 도착 시 이상 유무 등을 체크한 후 기본적인 차량 성능 체크 및 작동 방법을 숙지했다. 특히 이번 시승의 성공은 협업이 이뤄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새시 사업부(엔지니어링, 영업, 전략)에서 TFT를 구성하여 해외로부터 차량 도입을 위한 패키징과 운송, 픽업 협조까지 단단한 팀워크를 통해 성공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Q7 Demo car Chassis Driving Demonstrator



차량 유형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SUV) with AWD(All-Wheel-Drive).

모터라이제이션

- ICE: 3.0L V6 TDI(48V BAS 포함), 210kW, 600Nm
- 트랜스미션: 콰트로 팁트로닉(8단)

기술적인 특징

- 8.4mm 스트로크(약 4°)의 리어 휠 스티어링 시스템(iRWS)
- 능동 롤 제어 시스템(iARC) 48V(최대), 1200Nm
- 새시 시스템 컨트롤러 / 차량 소프트웨어

차량 기능

- iRWS: B1 샘플 기준
- iARC: 디자인 2(eAWS)
- 모든 하위 시스템의 차량 제어 및 관리를 위한 중앙 ECU로서의 dSpace Autobox
- 다양한 제어 설정을 위한 20개 이상의 추가 센서
- 설정 및 시각화를 위한 메인 HMI 유닛인 iPad

지능형 모빌리티 기술의 집약

이번 시승용 차량으로 사용된 아우디 Q7에는 지능형 후륜 조향 시스템(iRWS, intelligent Rear Wheel Steering)과 지능형 액티브 롤 제어 시스템(iARC, intelligent Active Roll Control)을 탑재했다. 이에 시승용 차량은 3.8도까지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작동했으며, 20개 이상의 센서가 부착되어 차량에 부착된 태블릿을 통해 차량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ARC를 통한 차체의 롤 제어가 가능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세플러코리아는 iRWS·iARC의 경우 HQ 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 개발 적용을 목표로 한다. 특히 iRWS·iARC의 PWG 적용은 HQ의 독자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제품보다 효율성과 NVH 및 성능을 개선한 사양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세플러코리아는 이러한 새로운 제품을 바탕으로 시스템 모듈을 공급하는 제품의 다양성을 개척함으로써 세플러의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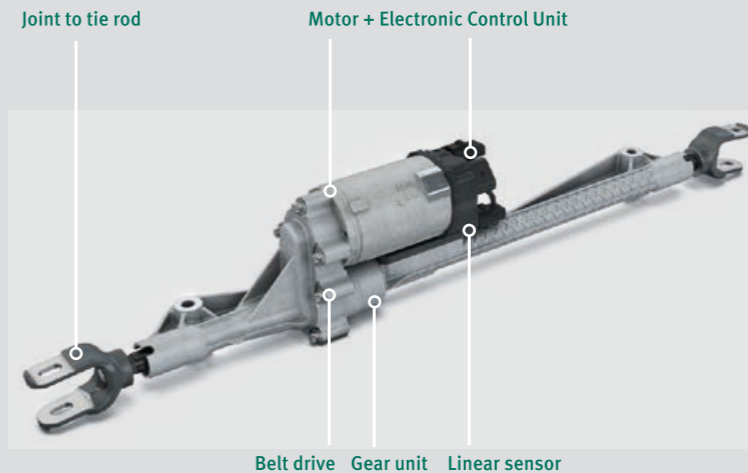
Technology

한 단계 진화한 세플러의 iR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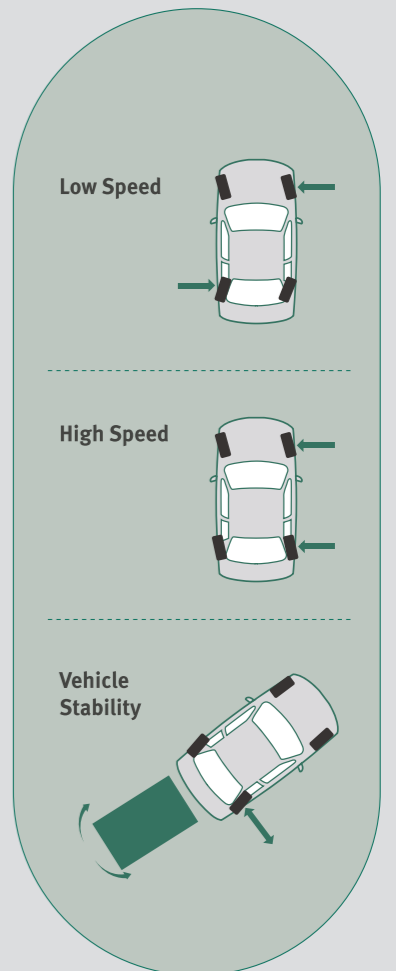
조향장치란 운전자의 핸들과 연결되어 주행 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장치다. 후륜조향시스템은 저속 주행 시 회전 반경을 감소시키고, 고속주행 시 조향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카, 대형 승용차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것이 세플러의 iRWS다.

메카트로닉 후륜 조향 시스템은 효율성이 뛰어나고 승차감과 안전성을 개선했다. 바퀴의 회전 반경이 줄어 좁은 주차 공간에서 기동성이 높아지기에 도시 환경에 적합하다. 리어 액슬(Rear Axle)의 보조 조향 기능을 통해 핸들을 조작, 안정감과 승차감을 향상하고 차량의 안전성을 높였다. 전체 중량이 최대 8kg밖에 되지 않아 경량성이 뛰어나다. 또한 유성 롤러 기어의 Self locking 기능으로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도 후륜 조향이 바뀌지 않아 안전하며, 유성 스크류 드라이브를 사용해 효율성이 뛰어나다. NVH에 있어서도 최적의 설계가 되었다는 점에서 저소음 전기차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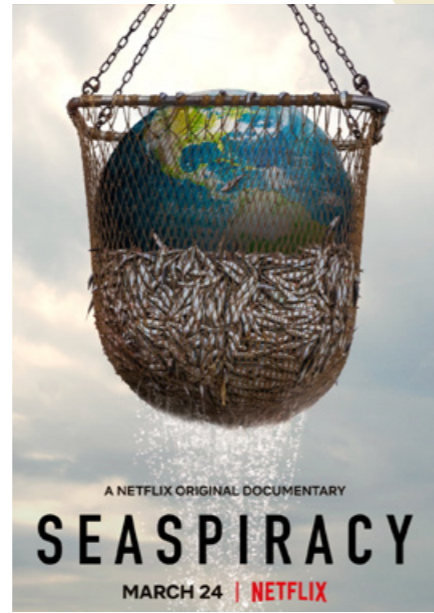
메카트로닉 리어 액슬 스티어링 시스템



- 최대 10kN의 높은 활성 파워
- 낮은 시스템 중량
- 마찰 감소
- 안전 상태에서의 자체 잠금(비활성화된 시스템)
- 전기차에 적합한 차량에 적합한 최적의 NVH 설계



영국의 한 신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고통을 표현하고 이를 침묵하는 언론을 비판하기 위해 실과 바늘을 들어 스스로 입을 꿰맸으며, 유럽연합의 어느 환경위원은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인가”라며 깊은 탄식을 내뿜기도 했다. 친환경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우리 자연과 환경을 다시 돌아 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소개한다.



플라스틱보다 너가 더 위험해!
씨스피라시
(Seaspiracy)

▶ 개봉일 2021년
감독 알리 타브리지, 킵 앤더슨

<씨스피라시>는 전 세계 상업적 어업이 지구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대한 진실을 낱알이 고발한다. 음모(Conspiracy)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따온 스피라시(Spiracy)와 바다(Sea)의 합성어인 ‘씨스피라시’는 인간이 사용하는 플라스틱보다 실상 어업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진실을 덮는 일부 환경단체와 대기업 사이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폭로한다. 감독은 고래사냥부터 대규모 저층 트롤어업, 삭스핀 획득 그리고 오염된 양식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활동을 바탕으로 바다가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산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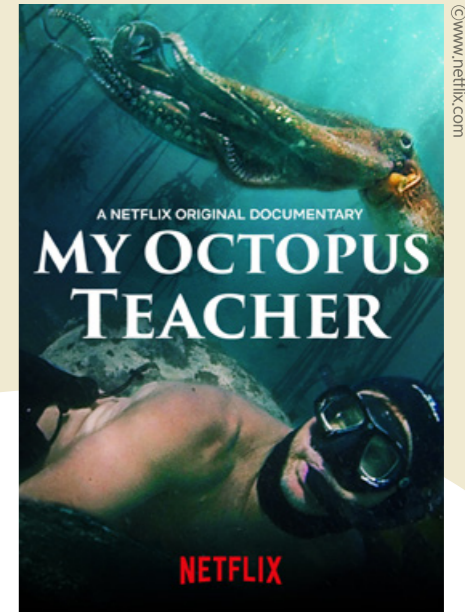
환경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길은?
**데이비드 애튼버러: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
(David Attenborough: A Life on Our Planet)

▶ 개봉일 2014년
감독 데이비드 애튼버러

<데이비드 애튼버러: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는 지난해 95세를 맞이한 다큐멘터리 거장 데이비드 애튼버러가 직접 출연했다. 영국의 동물학자, 방송인이자 환경보호론자인 애튼버러는 지난 50여년 동안 수많은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해설을 맡았다. 일생에 걸쳐 지구의 몰락을 지켜본 그가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 외치고 있다. 다큐멘터리의 3분의 2까지 분량은 데이비드 애튼버러의 생애 동안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자행한 파괴의 기록과 처연할 정도로 아름다운 생태계의 대비이다. 하지만 절망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수많은 파괴의 참상 속에서도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몇몇 희망의 가능성 또한 보았기 때문이다. 일말의 기대를 안고 후반 분량 동안 그는 현인의 지혜 보따리를 풀어낸다.



생명의 모든 것은 소중한!
나의 문어 선생님
(My Octopus Teacher)

▶ 개봉일 2020년
감독 피파 윌릭, 제임스 리드

<나의 문어선생님>은 위험한 생명체들을 주로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크레이그 포스터(Craig Foster)’가 연출한 작품이다. 그는 우연히 문어를 따라가다 문어의 삶을 관찰하고 이를 넘어 교감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다. 그가 수년간 오지를 떠돌며 촬영한 과격한 동물들과 달리 문어는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치열하게 사는 생명체다. 먹이 타깃으로 삼은 게가 쟁쟁하게 바위틈에 숨자, 숨죽여 기다린다. 온몸의 색과 질감, 형태를 외부 환경과 동일하게 바꿔 위장한 채 목표물이 방심하고 모습을 드러내자 몸을 그물처럼 활짝 펴 덮친다. 마지막에 문어는 그저 촬영 대상이 아닌 주인공의 친구가 되어 ‘문어 선생님’이라는 애칭이 생긴다. 이들의 진심 어린 교감으로 문어의 삶뿐만 아니라 바다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까지 일깨워준다.

PLAY GROUND

계단을 걷는 나의 두 발로, 에코백을 든 내 두 손으로, 한결 가벼워진
메일함으로 수많은 탄소발자국을 지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지구와 균형을 이루는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힘을 내어볼까요.



과일을 지켜라



2022 기후위기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과일들. 그리하여 세플러코리아인들에게 내려진 미션! 가장 좋아하는 '최애' 과일을 지켜라!



우리 식탁에서 과일이 사라진다면? 지속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실제 과일의 주산지가 바뀌고 하우스에서만 과일을 재배해야 하는 날 또한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돼! 내 과일!

김상원 이사 (컴플라이언스&보안)

우리집 머스트 해브 아이템인 바나나가 사라지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지!

이종우 마스터 (세플러코리아)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자두, 여보~ 내가 자두를 지킬게!

주윤선 프로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신채원 프로 (세플러코리아)

딸기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딸기우유, 딸기 라떼, 요구르트... 딸기가 없으면 디저트는 어떡해요!

저에게 상금함을 전하는 라임이 꼭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리갈리 <게임방법>



과일 카드를 가장 많이 획득해서 사라지는 과일을 지켜내자!

- 1 돌아가며 받은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펼칩니다.
- 2 펼쳐놓은 카드에 같은 과일 다섯 개가 보이면 종을 칩니다.
- 3 가장 먼저 종을 친 사람이 그때까지 바닥에 놓인 카드를 모두 가져갑니다.
- 4 게임이 끝났을 때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게임 스타트!

과연, 누가 과일 카드를 가장 많이 얻어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지켜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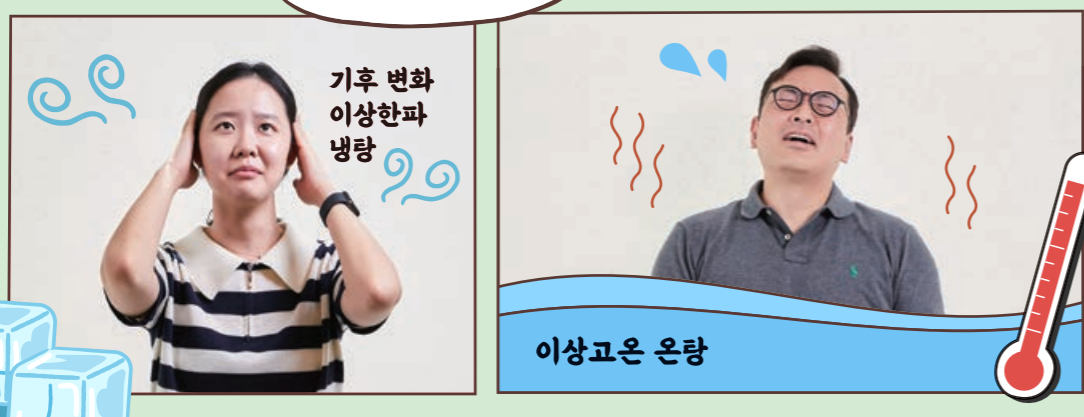
카드를 섞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고요

이수라 발발타~

이사님 한 장, 마스터님은 아래에서 한 장, 채원 프로님도 아래에서 한 장, 그리고 나 한 장.

ㅋㅋㅋ

넌 나에게 딸기 5장을 주었고!



승자에게는 싱싱한 과일꾸러미를 과일을 지키기 위해 애써준 탈락자에게는 '과일향' 잼이 선물로 증정됐습니다.





예쁜 가족의 테라리엄 만들기

하나의 가족은 작은 지구를 닮았다. 새 생명이 성장해 빛나는 청춘을 지나 아름다운 황혼으로 접어드는 여정은 지구가 탄생과 죽음을 거듭하며 지속되는 섭리를 닮았다. 투명한 유리병 속에서 작은 식물이 수분을 내뿜고 유리벽에 맺힌 수분이 다시 흡수되어 성장하는 ‘테라리엄(terrarium)’을 보다보면, 하나의 가족을 떠올리게 된다.

가을을 앞둔 어느 날, 설비보전 안산의 김종탁 사원 가족이 테라리엄 만들기 체험을 위해 경기도 화성의 플라워 샵을 찾았다. 김종탁 사원과 한창 개구질 나이인 열 살 쌍둥이 민수와 인수가 사이좋게 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등장했다. 아내 장복순 씨는 똑 닮은 세 부자의 모습을 보며 꽃보다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김종탁 사원이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한 것은 최근 좋은 날이 연달아 찾아왔기 때문이다.

“올해 결혼 10주년인데다 최근 아내의 생일까지 있었어요. 2022년은 저희 가족에게 뜻깊은 한 해예요. 의미 있는 해인만큼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테라리엄 제작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장복순 씨는 아직 체험 전이지만 벌써 “결혼 기념 선물과 생일 선물이 될 좋은 추억이 생길 것 같다”라며 설레는 마음을 보였다. 부모님 옆에서 예쁜 미소를 더해주는 두 아들까지, 오늘 하루가 오랫동안 좋은 추억이 되리란 건 이미 얼굴에서부터 알 수 있었다.

세상 하나뿐인 우리 가족의 작은 정원

설비보전 안산 김종탁 사원 가족의 테라리엄 만들기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이상기후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해준다. 가을을 앞둔 어느 날, 설비보전 안산의 김종탁 사원 가족이 테라리엄 만들기에 나섰다. 작은 유리병 속에서 수분의 생산과 흡수를 반복해 오랫동안 지속되는 테라리엄. 가족의 마음에는 테라리엄처럼 따뜻한 사랑의 잔열이 오래 남았다.



아내 장복순씨와 둘째 인수는 테라리움으로 '행복한정원'을 만들었다.

세상 하나뿐인 유리병 속 작은 지구

본격적으로 테라리움 만들기를 시작했다. 작은 유리병의 중심이 되줄 식물은 호빗, 프리티, 미파, 녹탐이란 예쁜 이름을 가진 4개의 다육식물이다. 다육식물은 사막 같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 생명력이 강하기로 알려져 있다. 물을 적게 주어도 오래 살고 관리가 편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기른다. 김종탁 사원은 첫째 민수와, 장복순 씨는 둘째 인수와 한 팀을 이뤘다. 지구처럼 둥근 유리병을 앞에 둔 두 팀. 테라리움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생모래를 바닥에 까는 것이다. 유리병은 화분처럼 밑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수 없다. 식물에 물을 줬을 때 생모래가 배수층 역할을 한다. 네 사람은 가을을 닮은 붉은색, 노란색 생모래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부었다. 어머니가 한 번 모래를 부으면 이어서 인수가 모래를 붓고, 아버지가 모래를 부으면 민수가 한 손가락씩 부으며 한층 한층 모래를 쌓아올렸다. 중심부를 움푹 패이게 모래를 부어야 배수층 효과가 커진다. 움푹 들어간 자리에 황사를 싣고, 마사토를 그 위에 부어 배수층을 단단하게 쌓아올렸다. 장복순 씨가 손가락을 들다가 바닥에 모래가 차르르 쏟아지자 온 가족의 웃음이 터졌다. “저는 털털한데 인수는 섬세한 성격이고 반대로 남편은 꼼꼼한데 민수는 덩덤해요. 테라리움 만들 때에도 성향이 드러나네요.(웃음)” 다음은 테라리움의 중심인 식물을 심어야 한다. 두 팀은 다육식물의 줄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조심스레 흙 속으로 집어넣었다. 뿌리 주변에 손가락으로 배양토를 부어 단단하게 고정시켰다. 배양토로 고정을 시킨 후에는 다시 마사토를 추가해 마무리 해준다. 다육식물을 심으니 유리병에서는 어느새 사막 한가운데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분위기가 났다. 크기는 작아도 아이들과 함께 만든 세상 하나뿐인 특별한 숲이 만들어졌다.



아빠 김종탁 사원과 첫째 민수의 '풍요로운 가을' 테라리움 만큼이나 풍요로운 시간이었길!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요? 가족이죠!”

테라리움의 백미는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팀 앞에 놓인 다양한 소품을 이용해 숲을 꾸몄다. 화산석, 자갈 등을 놓아 생생한 자연의 느낌을 주거나 다람쥐, 여우, 고양이처럼 여러 동물 인형으로 즐거운 동물 잔치를 표현했다. 여기에 프리저브드 플라워도 더했다. 생화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지만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생화를 특수 보존 처리해 최대 5년까지 모습을 유지한다. 꽃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 테이블에 스칸디아모스, 안개꽃, 라그라스 등 다양한 꽃의 프리저드 플라워가 준비됐다.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핀셋으로 다육식물 사이사이에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꽂으니, 나무와 꽃이 함께 어우러지는 테라리움이 완성됐다. 열심히 완성한 테라리움을 보는 두 팀의 얼굴에 웃음이 걸렸다. 김종탁 사원과 민수는 테라리움에 ‘풍요로운 가을’이란 이름을 붙였다. 장복순 씨와 인수의 작품명은 ‘행복한 정원’이다. “테라리움 꾸밀 때 집을 가장 먼저 골랐어요.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저희만의 집이 있는 정원을 꾸며봤습니다.” 작은 지구를 닮은 테라리움처럼 네 가족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최대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야 한다”라면서 아름다운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한 조연도 잊지 않았다.

프리저브드 플라워처럼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됐으면 하는 게 무엇일까? 김종탁 사원과 장복순 씨 모두 입을 모아 ‘가족의 행복’이라고 답했다. “가족이 건강하고 두 아들도 사춘기가 와도 부모님과 문제없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춘기가 와도 부모님과 잘 지낼 거지?’란 질문에 두 형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현장에는 웃음이 터졌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한 해를 맞은 두 부부가 서로에게 인사를 전했다. 김종탁 사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가 비교적 이른 나이인 25살에 결혼했어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에 지금처럼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남편의 수줍은 고백에 장복순 씨도 깊은 속마음을 털어냈다.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하고 고마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 서로서로 생각해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직접 만든 테라리움처럼 예쁜 미소를 남기고 간 김종탁 사원 가족. 오랫동안 지속하는 테라리움처럼 이들의 사랑도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가치소비는 이제 유행이 아닌 필수다. 세플러코리아인들은 가치소비를 어떻게 실천하고, 또 세대별로 어떻게 다른 소비패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20~50대 세대별 대표에게 물었다. 세대별 대표의 가치소비 실천을 통해 세플러코리아인들의 가치소비에 대해 알아보자.

소비로 표현하는 가치 있는

삶

세대별 가치소비 실천력은?

"유행이 아니라
지속하고 싶은
선택이죠"

~ 20대 스피드 ~



Q1.

가치소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사용이 늘어나면서 피부 상태가 악화돼 회복을 위한 여러 제품을 알아보던 중 비건화장품을 사용하게 됐어요.

Q2.

비건 화장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여기서 비건은 채식주의가 아니라 동물성 대신 식물 유래 성분을 원료로,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화장품에 쓰이는 동물성 원료는 우유, 꿀, 비즈왁스, 달팽이점액, 콜라겐 등인데 곤충이나 동물에서 추출해야 하므로 자연 친화적으로 이러한 원료를 쓰지 않는 것을 뜻하죠.

Q3.

가치소비를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폭우, 폭염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기후위기가 확 와닿더라고요. 거기에 모르는 사이 환경오염을 내가 직접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의 소비나 사용이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지 항상 고민해요.

Q4.

앞으로 지속하고 싶은 가치소비는 무엇인가요?

화학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식품, 천연 소재로 만든 제품, 환경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가치소비를 지속하고 싶어요.

Q1.

가치소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세플러그룹 전체가 함께한 기후 행동의 날(Climat Action Day)을 하게 되면서예요. 그전에는 나의 실생활과 거리가 멀다고 여긴 것들이 많았는데 개인의 작은 행동이 모여야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Q2.

실천해본 가치소비는 어떤 것인가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하고요. 친환경을 실천하는 기업인지 확인하고 있어요. 제품의 가격이 합리적인지, 제품은 좋은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 행보도 알아보고,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Q3.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요?

시작은 친환경 소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부터였는데 이제는 제 생활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평소 음료를 사러 드라이브스루를 자주 이용하는데 텀블러와 스테인레스 빨대를 꼭 가져가려고 노력해요. 환경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껴요.

Q4.

가치소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요?

부지런함이 필수인 듯합니다. 다회용기에 음료나 음식 포장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하고 휴대도 계속 해야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의 번거로움이라면 감수할 수 있어요. 아, 번거로움을 참아야 하는 것도 가치소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겠네요.

"지구를 위해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요"

~ 30대 스피드 ~



Q1.

가치소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일본에 생긴 반감이 자연스레 '불매'로 이어졌어요. 소비할 때 원산지, 제조사, 제조국가를 꼼꼼하게 확인해요. 일본 제품을 절대 구입하지 않기 위해서요.

Q2.

가치소비를 지속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면서 국산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사용하고 좋은 제품은 주변에 추천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일본 제품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나라의 대체품도 찾았었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Q3.

가치소비를 실천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 있다면요?

무심코 사던 제품의 뒷면이나 기업들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어요. 제품 구매 이전에 제품 성분과 원재료 확인, 제품 리뷰까지 꼼꼼하게 검색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걸 '체크슈머'라고 하던데 제가 바로 그 체크슈머인 것 같아요. 체크슈머이자 가치관에 따라 소비하고 그렇지 않은 건 불매하며 신념을 드러내는 '미닝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Q4.

가치소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신념에 맞는 소비를 하고 싶어요. 잠깐의 감정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작은 역할이 발판이 되어 목소리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작은 신념과 목소리가 아주 많이 모여야겠지요?

- 40대 S마스터 -

"작은 신념이 모여 큰 목소리가 되길"

국내산 한돈

"여러분의 소비를 점검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어요"

- 50대 S탑장 -

Q1.

가치소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예요.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된 가치소비를 실천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실천하는 가치소비는 아내와 에코백 하나씩 둘러메고 재래시장에 가는 거예요.

Q2.

지속하고 있는 가치소비는 무엇인가요?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도록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재래시장에 가면 대형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재래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활력이 있어 좋습니다. 가치소비를 통해 정겨움과 활력도 얻어가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 꼭 시장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Q3.

가치소비 이후 가장 많이 변화한 게 있나요?

심은 그동안에 재래시장과 로컬푸드를 위주로 소비를 해 온 것은 가치소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치소비임을 알게 됐고, 재래시장 이용 외에 다른 가치소비를 고민하고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에서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사회의 선순환을 이루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Q4.

가치소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요?

시장에서는 정을 주고받는 '덤'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 덤을 받을 때 다 먹지 못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요. '그만큼만 담아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야 할 것들을 미리 적어 가서 구입해 충동구매도 막으려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요.

가까이에서 찾은 행복

세플러코리아 임직원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고고고 영상 챌린지. 이번 호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 즐거움, 감동의 순간들을 공유합니다.

세플러+원은 2022년 겨울호를 통해 임직원 및 가족에게 #고고고 영상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영상을 응모해주셨고, 올 한 해의 수상작 및 훌륭한 작품들을 이번 사보에서도 소개합니다.



수상자 안내	최우수상	정우진 남부직납영업
	우수상	안경리 창원물류 우현정 안성물류
	장려상	박현서 업무지원 창원 전보배 Customer Service 창원 민광운 BD 새시시스템 사업기획
	크리에이티브상	조명현 AAM Product Management 이재홍 테이퍼롤러베어링 세그먼트



우수상



우현정 프로
안성물류



“애들이 산책 갈까?”

산책을 좋아하는 우리집 귀여운 멍멍이들 덕분에 움츠러드는 겨울에도 산책하러 나간답니다. “애들이 산책 갈까?” 한마디에 이리도 좋아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산책만 하러 나가면 바람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산책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표정으로, 몸짓으로 보여주니까 외출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멍멍이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산책으로 체력단련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지켜주려고요. #고고고 영상 챌린지 뽀뽀 기념으로 맛난 개껌도 선물해줬어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우리집 귀염둥이 키티는 파양이라는 아픔이 있는 고양이입니다. 저는 키티를 입양하기 전부터 반려동물들이 판매만을 목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된다는 사실을 알고 꼭 입양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입양으로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키티가 저한테 오게 됐고요. 애교와 몸짓이 귀염둥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나요? 그래서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고고고 영상 챌린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연락해주세요.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장려상



민광운 팀장
BD 새시시스템 사업기획



김태철 마스터
BD 베어링 국내OEM영업1



참가상

“우리집 연예인 누구?”

작년 여름 <세플러+원> 사보에 실린 걸 보고 첫째 아들이 TV나 신문에 나온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올해에도 아들과 함께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물색(?) 하던 중 #고고고 영상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네요. 이런 기회를 통해 아이에게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참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스 하이라이트

세플러코리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세플러+원>에서 세플러코리아의 소식을 모아 소개합니다.



세플러코리아, 프로 골퍼 박지영 선수 스폰서십 체결

세플러코리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로골퍼 박지영 선수와 지난 9월 6일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세플러코리아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이병찬 대표와 박지영 선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스폰서십 체결에 따라 앞으로 박지영 선수는 옷깃과 무릎 등에 '세플러코리아'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세플러는 그룹 차원에서 자동차 레이싱 선수를 후원한 경험은 있으나 세플러코리아에서 자동차 레이싱 선수가 아닌 국내 프로 골퍼를 후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플러코리아는 박지영 선수를 통해 자동차 부품 및 베어링 분야의 애프터마켓 사업을 보다 대중적이고 친근하게 알리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지영 선수는 2015년 KLPGA에 참가한 이후 KLPGA 신인왕 수상, 2016 KLPGA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우승을 비롯해 꾸준하게 TOP 10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진행된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는 우승을 거두며, 현재 상금 랭킹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플러그룹 매출, 원화 기준 10조 원대 첫 진입



세플러그룹이 2022년 상반기 75억 4,800만 유로(약 10조 1,67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3.1%(고정환율 기준) 성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플러그룹은 반도체 등 완성차 부품 공급망 이슈 여파로 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 사업부의 매출이 0.8% 소폭 감소했으나 E-모빌리티, 새시 시스템 사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품군을 출시한 결과 각각 13%, 19%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오토모티브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3.2%, 산업기계 사업부는 10%대로 성장하면서 그룹의 전체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산업기계 사업부는 산업 유통 및 산업 자동화 부문 클러스터 물량 증가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기간 중 20억 6,500만 유로(약 2조 7,815억 원)의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13.6% 늘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제10기 EVERGREEN, 해단식과 함께 성황리에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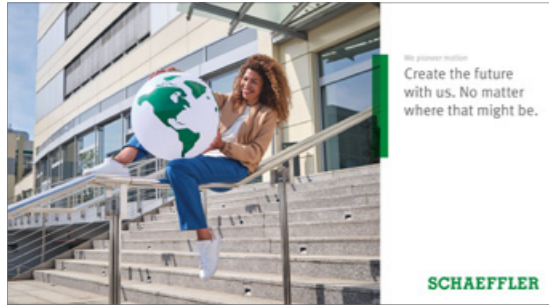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 10기가 지난 9월 24일 해단식과 함께 2022년 활동을 성황리에 성료했습니다. 제10기 에버그린은 서울역 쪽방촌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유기견 보호소, 일손이 부족한 농가, 무료 급식소, 다문화 센터에서 총 7회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단은 해단식을 통해 수료증 및 기념품 증정, 봉사단원들의 소감 발표, 격려사 등을 통해 올해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2013년 1기로 시작해 올해 10번째를 맞는 에버그린 봉사단은 그동안 벽화 봉사, 농촌 일손돕기, 장애인 체육활동, 연탄 나눔 등을 통해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를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8기와 9기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멈추지 않고 비대면으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 봉사단과 수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세플러, 전기 모빌리티용 드라이브 '4in1 전기액슬' 개발

세플러가 혁신적인 전기 모빌리티용 드라이브 '4in1 전기액슬'을 선보였습니다. '4in1 전기액슬'은 전기 모터와 전력 전자장치, 변속기에 더해 열관리 시스템까지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불필요한 호스와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열의 형태로 손실되는 에너지 최소화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열 관리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배터리의 성능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의 적정 온도 유지 여부가 주행거리와 충전 기능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4in1 전기액슬은 지능형 제어 시스템으로 잔열이 차량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재활용되도록 제어하며, 배터리 온도 또한 조절해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수년 동안 전기 모빌리티 분야를 강화해 온 세플러는 전기 모빌리티 전략의 핵심요소로서 전기 액슬에 대한 R&D투자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세플러코리아, 채용박람회 참가

세플러코리아가 오는 11월 14~15일 열리는 제17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보다 유망한 잠재 직원들을 모집하고 세플러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보다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제17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는 서울 코엑스 3층 D홀에서 열리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기업 테마 채용박람회입니다.



2022년 상반기, Sales Award 수상자 선정

세플러코리아가 영업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포상하기 위한 Sales Award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Sales Award 제도는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포상이 주어집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총 여섯 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반드시 견실한 성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상자 명단: Commercial Effectiveness 부문 △임창범 마스터 △이태훈 마스터 △심수정 마스터 △문석기 프로 New Business Award △신수일 마스터 △이겨레 마스터



Thanks & Quiz

기자단

- 서울 박지수 기자, 김유정 기자
- 창원 기대환 기자, 손강우 기자
- 안산 정배근 기자
- 전주 조규완 기자, 최규철 기자
- 연구소 김현용 기자

편집실

-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 민유정 팀장, 주윤선 프로

지난 호 당첨자 명단

- 서울 이선중 (Industrial 영업관리)
김성만 (Global Technology Service AP)
- 창원 김성미 (창원물류)
김혜경 (창원물류)
전보배 (Customer Service 창원)
장창환 (테이퍼롤러베어링 세그먼트)
신승수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중훈 (대형볼&워터펌프베어링 세그먼트)
안경리 (창원물류)
우진철 (소형중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손용암 (테이퍼롤러베어링 세그먼트)

- 안산 조도희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박승민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 전주 조완신 (공장구매 전주)

- 안성 신동철 (안성물류)
이범주 (안성물류)

사보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1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M O N = 3

T U E = 5

W E D = 4

T H U = ?

출처: N1 <문체위 남자>

퀴즈 2

세플러가 새롭게 선보인 전기모터, 변속기, 전기-전자장치를 하나로 통합, 열 관리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의 제품은?
①전기액슬 ②4in1 전기액슬 ③액션 ④모빌리티

지난 호 정답
퀴즈 1. 11개 퀴즈 2. ① 재해예방팀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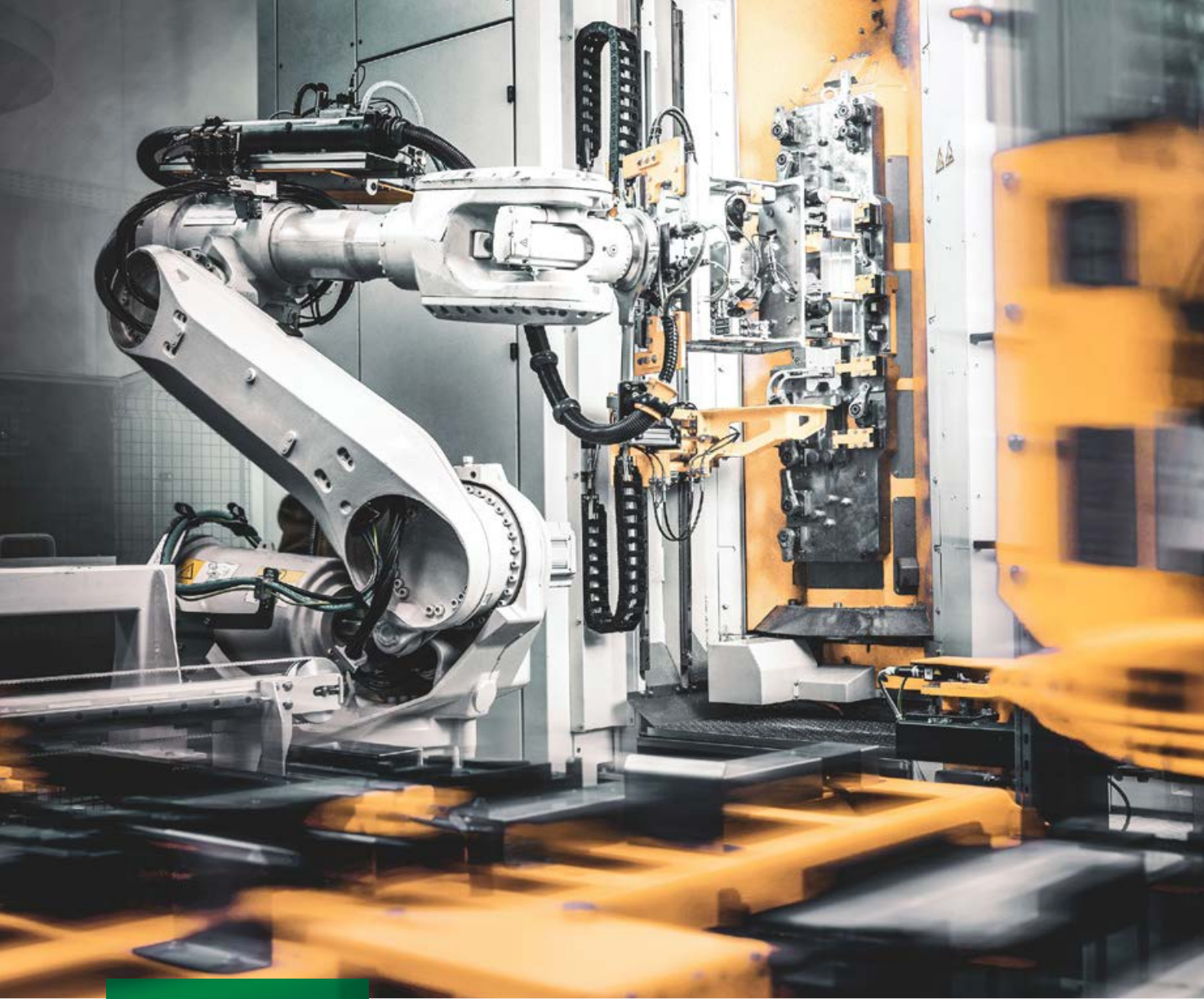
jooyun@schaeffler.com

보내실 때
코너 제목/ 이름/ 소속/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응모 마감
2022년 11월 15일까지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로 보내주세요.

* 문자 보내기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담당자 메일을 넣어 전송



We pioneer motion

세플러 정밀 유성기어 PSC 시리즈

보다 정밀하고 유연하게

세플러 PSC 를 장착한 협동로봇을 사용하여 보다 더 정밀하게 유연하게 작업하세요.

- 작업백래시 0.1 Arcmin 이하의 고정밀 감속기
- 효율 90% 이상의 고효율 정밀 감속기
- 정격 기준 2만 시간의 긴 수명
- 300Nm 에서 5,000Nm의 토크범위
- 9가지의 사이즈와 중공축 모델 가능
- 모터 체결만으로 간단히 구동 가능한 유닛형 가능



Contact

leeiky@schaeffler.com

SCHAEFFLER